

채란업의 최대 관건은 안전성 확보

□ 취재/김용화 부장
□ 통역/이건표 사장

「본고는 일본의 채란양계업이 엔(円)화가 지 저하에 따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지난달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일본 현지에서 박람회 및 채란업계를 돌아보고 그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일본 취재에 동행하여 통역과 안내를 맡아준 유일농원 이견표 사장, 현지에서 취재에 협조해준 일본 清明養鶏 嶋田匡武 사장 등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편집자주-

국가를 보면 1인당 연간 국민소득과 비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일본은 '80년대초에 이미 국민 1인당 소득이 1만불을 넘어서 이제 3만불대를 깨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경제 선진국인데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은 고작 1만불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채란업이 개별 농가 위주의 경영에서 G.P센터의 집약적인 계약방식의 경영을 지나 이제는 품질인증을 위해 규모화된 농가 위주로 개별적

1. 일본의 양계업 근황

일본의 채란양계업은 이미 상당한 내용이 한국에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을 한국이 처한 입장에서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일본 채란양계업이 한국에 주는 이미지는 이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계란소비는 나라와 문화, 즉 식습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대부분의 고소비



△ 일본 전시회에 고부가가치 계란이 선보였는데 불황타개 대책의 일환이다.

인 독립경영 체제로 자리매김을 하는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

일본은 도·농간 소득격차를 어느 정도 극복하고, 안정된 금리, 신용정책, 소비의 세계적 수준이라는 우리가 보면 부러울만큼 안정된 모습이지만 일본은 일본대로 채란업이 안고 있는 문제 또한 많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

수입개방을 거쳐 상품성 제고로 부가가치를 높여 국내 시장을 확보하는데까지 많은 시간과 예산을 투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 계속되는 재투자, 식품으로써의 안정성 문제가 대두되어 큰 고민을 해온 것도 사실인 것 같다.

불행하게도 아시아의 금융위기로 인한 엔화 가치 하락 여파로 경제가 성장을 멈추어 소비격감 앞에서 대다수의 채란업자들은 그저 답답한 마음으로 고개를 떨구고 있는 것이 현실이나 지금까지 채란양계업을 이끌어 온 정신력이 있어 새로운 변신을 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2. 전시회

나고야에서 개최된 제6회 아시아·태평양가금회의 및 전시회장은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의 금융위기로 경제가 얼마나 나빠졌는가를 실감나게 하였다.

나고야시 중소기업 진흥회관은 약 1,230여평 규모인데 참가업체가 많았다면 240여 업체는 수용이 가능할 것도 같은데 40여개사가 140개



△ 경기불황을 말해주듯 전시장이 빈곳이 많았다.

부스(3m×2m)를 사용하여 빈공간이 많았는데 이번 부스자리에는 초등학교생들을 대상으로 모집한 포스터 그림으로 대신 장식을 하였다.

물론 가금학회 행사의 일환이란 점을 고려한다 해도 일본경제 역시 우리나라 보다는 정도가 덜할 뿐이지 침체는 마찬가지로여서 일본 채란양계인들의 관심이 적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전시회에 참가한 업체들은 주로 생산성 향상에 비중을 두었다기 보다 안전성에 초점을 맞추어서 일본 채란양계업이 걸어가고 있는 방향만은 충분히 제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들게 하였다. 다행히 한국에서도 보일공업이 참가하여 상담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3. 일본 채란업의 당면과제

일본 양계업은 국가의 외환보유고가 많아 외환위기가 없었다고는 하지만 나름대로 어려움

은 많다고 동경 부근 싸 이다마현에서 채란양계 20만수를 하고 있는 세 이메이(清明)농장 시마다 마사다케(嶋田匡武) 사장은 설명하고 있다.

최근 상황을 묻자 양계업을 시작한 이후 계란가격이 최저수준이란 말과 함께 한국의 난가를 확인한 후 현재 일본의 농장수취 가격이면 한국에 수출도 가능할 정도라고 농담섞인 대답에서 그들의 어려움을 읽을 수 있었다.

일본의 계란생산비는 대략 kg(약 17개)당 180엔대이다. 농협(全農)의 고시가는 150엔대이지만 실제 농가수취가격은 6월 6일 현재 85엔이었다. 계란 1개당으로 환산하면 약 5엔(50원)이다. 이 가격은 생산비의 50% 수준이다.

산란사료 가격은 CP 20% 기준 kg당 3만엔으로 우리나라 보다도 높은 편이다.

일본에는 자조금 성격의 난가안정자주기금(대규모 농가들이 자발적으로 조성)이 있어 이 기금을 난가하락에 따라 노계도태시 수당 50엔을 보전해 주는데 활용되며, 난가안정기금은 자조금 성격인데 난가가 생산비 이하로 하락하여 일정수준(kg당 175엔)이 되면 계란 출하시 보조를 해주고 있다.

이처럼 채란업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난가안정기금이나 자주기금을 조성하여 방출을 하다 보니 소비가 감소하여 생산량을 줄여야 하는데도 채란업자들은 생산을 줄이지 않고 있는 악



△ 청명양계 시마다(嶋田匡武) 사장

재로 이용되어 채란양계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었다.

노계도태시에도 수의사가 일일이 검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채란업자들은 도태를 원하여도 검사가 밀려 도태를 하지 못한다. 이를 두고 관료주의의 한계를 꾸짖고 있다. 물론 검사비는 수당 5엔을 농가가 부담한다. 노계가격

은 수당 15엔 정도이다. 일본은 강제환우를 실시하지 않고 있어 난가와 난질 또는 난각 상태에 따라 농장주가 스스로 도태시기를 결정하고 있다.

일본 채란농가는 외환리스자금을 이용한 곳이 없다. 대출금리는 평균적으로 1%대인데 양계장을 건축하기 위해서 대출을 신청하면 법인의 경우 국가기금은 2%, 각 도(縣) 기금은 1%의 연이자가 붙어 담보력과 신용을 같이 평가하여 받게 된다. 이같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국내경기 위축으로 저난가 시대를 맞이하여 울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한국의 채란농가와 비교하여 보고 무엇이 나은지 분간이 어려웠던 것은 사실이다.

일본 역시 1달러당 80엔대의 안정된 환율 하에서 채란양계업이 변화를 이루었다. 최근엔 140엔대까지 엔화가 하락하면서 큰 변화가 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수입업자는 타격을 보아 수입은 감소한다 하지만 경기침체로 소비가

위축되어 과잉생산이 그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이다.

여기에 식품의 안전성이 사회 문제로 부각되면서 소비자들은 계란소비에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다. 살모넬라, O-157 등의 유해성 병원균이 발병하는 한 계란 소비는 더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4. 일본 채란양계업의 문제점 해결방안

경영효율을 극대화시키는데 초점을 맞추어 온 일본 채란양계업에도 과잉생산, 저난가에 시달리면서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우선 집하장 체제의 위생란 유통에서 안전성 확보와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개별농가 경영



△ G.P.장을 작업을 끝난 후 가정의 마루처럼 닦고 있는 모습.

체제로 탈바꿈을 하고 있다. 일본 소비자도 이제부터는 안전성과 자연란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특수란 시장이 커지고 있다.

백색계가 90% 정도를 점유하고 있던 일본이 특수란 시장이 형성되면서 약 20%까지 갈색계 사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계란의 안전성 문제가 노출되면서 소비자들은 주변에 있는 농가에서 안전성이 보증되는 계란을 구입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상표란을 만들어 직판에 나서야 저난가를 극복할 수 있다는 판단들을 하고 있다.

세이메이 농장의 경우에도 컴퓨터로 주문을 받아 가정 또는 업소에 직접 배송을 하고 있다. G.P.센터에 출하하면 kg당 85엔을 수취하게 되지만 직판을 하게 되면 kg당 120엔은 받을 수



△ 고압수증기로 계란운반 상자를 매일 소독하고 있다.

가 있다고 시마다 사장은 설명하고 있다. 신용만 쌓으면 수십 년이고 거래처를 바꾸지 않는 것이 일본의 풍토이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 모든 계란은 세척을 하는데 세척을 할 때에도 소독약 대신 오존살균을 한 물을 사용하고 있다. 대개 일본의 계란 노른자 색도는 12°가 되는데 이 역시 소비자의 시선을 끌기 위해 차별화 전략으로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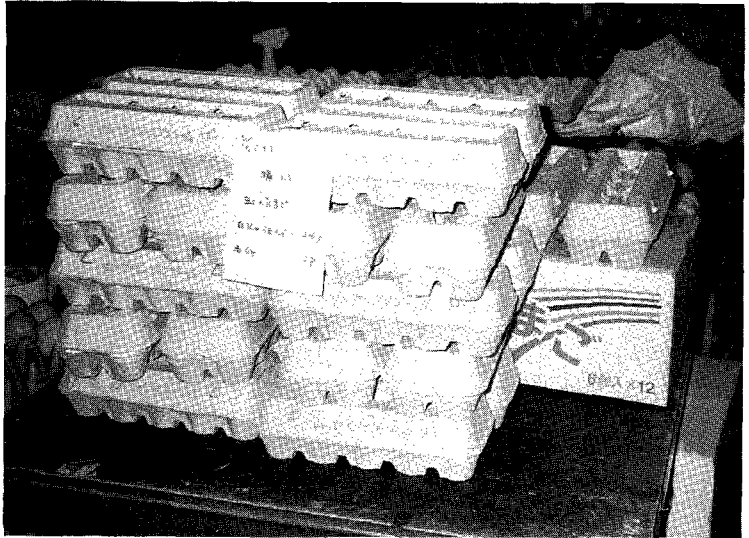
또한 계란유통의 중심 역할을 하였던 중규모 농가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는데 이 또한 안전성 확보와 부가 가치 창출의 한계 때문이 아닌가 여겨진다.

5. 일본 채란업의 전망

일본의 채란업은 경기침체에 따른 저안가로 인하여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는 느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 여겨진다.

난가가 생산비 보다도 훨씬 밀돌아 경영에 적신호가 켜지면서 차별화 대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대열에 끼지 못하는 중간 규모의 농가들이 머지 않아 탈락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이미 농협에서도 보조를 할 때에 경영의 지속성을 분석하기 위해 인정농가제도를 법제화해서 선정된 농가 위주로 집중·육성해 나가고 있다.

清明養鶏가 바로 싸이다마현(埼玉縣)에서 1호로 농업경영개선계획인정 농가로 선정이 되어 생활협동조합은 물론 직거래시에도 품질의



△ 매일 주문을 받아 배송하고 있다.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품질관리를 위해 농장과 G.P 처리장은 매일매일 위생검사를 체크하고 있으며, 소비자 단체나 행정기관에서도 샘플을 수거해 안전성 검사를 하고 있다.

이런 점을 볼 때 앞으로 일본의 채란업은 HACCP에 부합할 수 있으나, 없느냐에 따라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될 것으로 예측이 된다. 저안가가 지속되면서 안전한 계란을 생산해내지 못하는 농가는 자연이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것이 시마다 사장의 향후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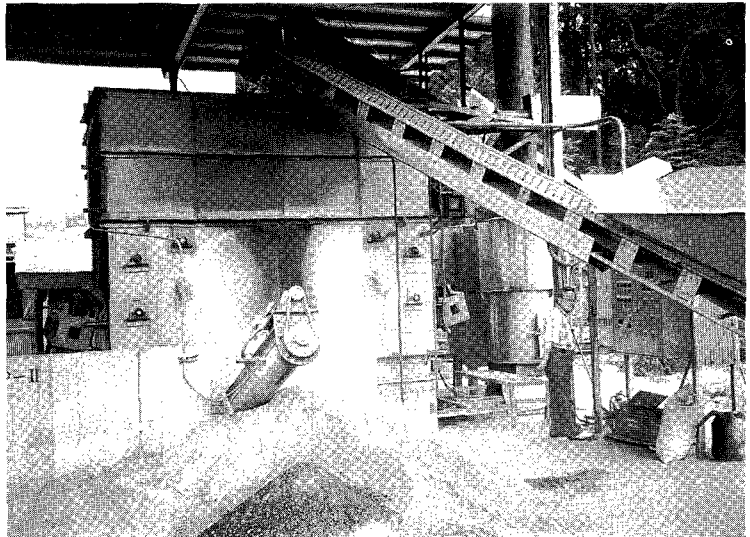
다른 농장보다 더 좋은 계란을 생산하여 소비자들이 스스로 선택하게 하여 승부는 걸어도 가격경쟁으로 상대방의 거래처를 내 것으로 확보하지 않는 일본인들의 상거래 질서를 볼 때에 일본 채란인들이 느끼는대로 계란의 안전성 확보가 농가 사활을 결정짓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위생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예고된 셈이다.

대신 생산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시설자동화

와 관리 수준이 향상되어 있어 양적인 팽창 보다는 질적인 향상을 도모해 갈 첫단추를 끼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게 하고 있다. 무창계사도 수차레식 시행착오를 거쳐 먼지 없는 계사가 될만큼 완벽성이 높아져서 스트레스를 주지 않기 때문에 디비킹을 실시하지 않을만큼 발전해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다.

파리를 없애기 위해 사료에 약제를 첨가하면 만일에 하나라도 위해성분이 전이되지 않을까 하여 전체 농장주변을 포장해서 파리가 서식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정신여력이야말로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경영의 노하우가 아닌가 생각된다.

마무리에 앞서 시마다 사장은 무창계사일수



△ 일본에서 1호기로 설치한 계분자체열 소각장치

록 사고가 많은 것도 사실이라고 하였다. 닭을 출하한 후 갈바륨 판넬을 유심히 살펴보니 완벽하다고 자부했던 벽을 쥐가 침입하여 스킨로폴을 갇아 전기배선 부분까지 길을 내는 것을 보고 관리자의 관심이 무창계사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이라고 단언하였다.

계분도 어느 정도는 발효건조시켜 문제가 없으나 출고에 따른 적재량 조절 때문에 얼마전에 일본에서는 처음으로 계분 소각장치를 하였다. 처음 점화시키면 다음부터는 외부의 열원 없이 자체열로 계속해서 무창계사에서 나오는 생계분을 그대로 소각하는 것이다.



△ 농장견학을 마치고 기념촬영(좌)김지태, 이건표, 시마다, 김용화, 박헌순, 한진규씨

6. 일본 채란업 취재를 마치고

인간의 식습관은 전통과 경험에 따라 다른 것은 사실이다. 국민소득 1만불인 우리가 3만 불대를 넘어선 일본의 채란양계업을 모방한다는 것은 시간차 때문에 위험요소가 크다고 본다.

그러나 큰 틀은 소득이 증가하면서 비슷하게 모방이 되어간다는 생각이 든다. 양계업도 주변 여건과 같이 행보를 한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그들이 경험한 것을 활용하여 시행착오를 줄여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접근해야 한다.

계란유통이 G.P센터 또는 집하장 체제로 가야 한다는 단편 논리도 일본의 흐름을 보면 진정한 의미에서 제고가 되어야 한다.

공동출하와 개별출하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좀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리란 생각이다.

한가지 사업을 위해 10여년간 계획을 세웠다는 일본 채란양계업자의 말이 어찌면 더 무게가 있을런지도 모른다.

누가 우리에게 외환위기가 올 것으로 생각했는가. 통일도 마찬가지로 한가지 변수가 될 수도 있다.

큰 획을 긋는 사안은 개인, 단체, 정부가 한 마음으로 이해득실을 따져가며 우리에게 불리한 것을 좀더 쉽게 소유할 수 있는 기회부여의 차원에서 힘을 배가시키는 진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갖게 하였다.

우리나라 채란업도 많은 면에서 유리한 점이 있다. 모든 것을 풍속이 다른 선진국의 예만 쫓을 것이 아니라 나쁜 부분만 고치기 위해 선진국의 예를 받아들여야 우리나라 채란양계업이 발전할 수 있다는 교훈을 끝으로 정리를 마치 고자 한다. **양계**

종계용 급이기 및 난상판매

급이기 품명 : 쉘난도 3조

1조당 : 200만원 (새것같은 중고)

난상 : 1개당 2만원(새것같은 중고)

육계용 급이기 및 급수기 구함

*농가용 발전기 구함(20k 미만)

연락처 • 핸드폰 : 011-724-4259

전 화 : 0342-708-4259

709-3479